

Hana FX Weekly Letter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5. 12

주간 달러/원 동향(5/7~5/9)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초반 원화 환율은,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 진행 소식 속에 대만의 미국과 관세 협상에 앞서 환율의제에서 달러 강세를 용인할 것이란 소식에 대만달러의 큰 폭 강세 흐름에 아시아 통화시장 전반이 동조화되며 원화 환율도 6개월여 만에 1,370 원대 진입. 이후 일부 대만 달러의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며 하락분 일부가 되돌림 된 국면. 이어 전일 밤 FOMC에서 금리 동결 결정되며 연준 의장의 기조가 다소 매파적으로 인식되었으나, 환율에 대한 영향은 다소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냄 이후 NYT의 미-영 무역 합의 발표 가능성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외국계 중심 달러 매도세 확대에 소폭 하락 전환
- 주 후반, 환율은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 속에 글로벌 달러화 가치 반등 흐름 속 1,400원선을 회복한 가운데 10일 있을 미-중간 관세 협상 경계감 등이 반영되는 모습 속에 마감

달러/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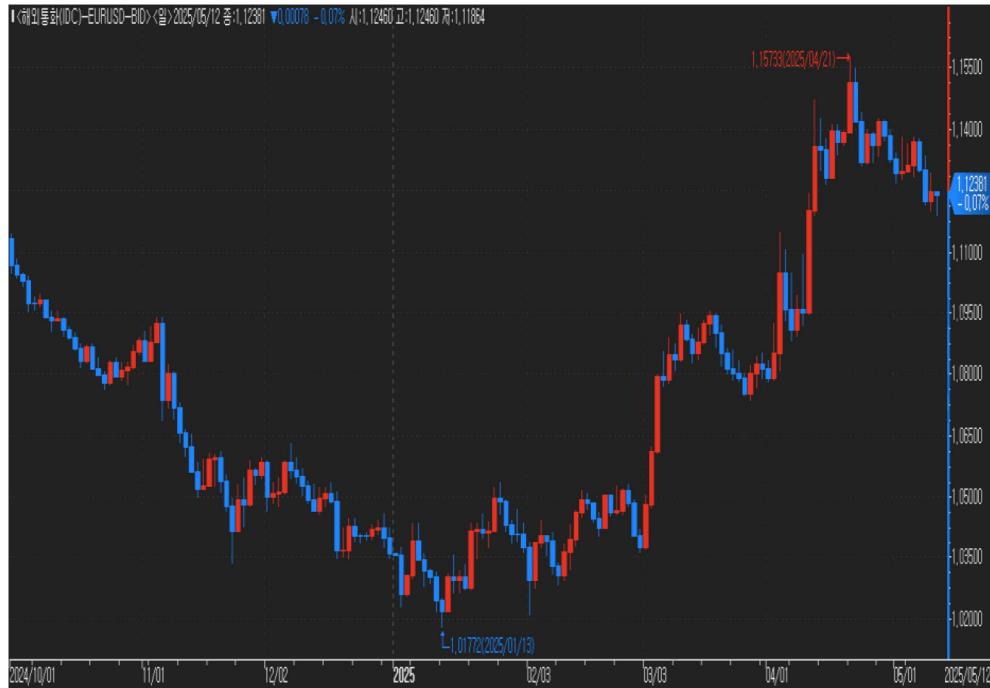
- 지난주 후반, 스위스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음을 발표함에 따른 긍정적 회담 내용 등이 반영되며 환율 하방 압력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이에 앞선 영국과 협상 타결 이후, 주요 국가들과의 협상 진전 기대 등도 위험 선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중부유럽 전쟁의 러시아 종전 협상 제안에 우크라이나가 응한 점도 위험 선호 요인으로 작용할 가운데 전반적 하방 압력이 클 전망이나 저가 인식의 결제 수요 유입 등이 하단 제한할 것으로 예상됨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80.0	1,415.1	1,379.7	1,400.0	-5.3

예상거래범위

1,390원 ~ 1,415원

유로·엔화 동향 (5/5~5/9)



유로화 동향

- 주초, 달러 가치가 대만달러 등 아시아 통화 절상 기대가 팽배해지면서 99선 중반까지 밀림에 따라 유로화는 상승 흐름 출발. 다만, 탄탄한 미국 서비스업 업황과 미국의 주요국과 협상 기대 반영 등으로 달러 가치 상당 부분이 회복 흐름을 나타내면서 상승폭 일부 반납한 국면. 이어 영국의 무역 합의 임박 소식 등으로 파운드가 달러 대비 강세 보인 가운데 의약품 관련 품목별 관세 불확실성도 달러 약세 견인하면서 유로 상승 추세 지속 국면 시현. 중반 들어, Fed의 금리인하에 신중한 입장 재확인과 트럼프가 중국과 협상을 위한 관세 인하가 없음을 못박음에 따라 달러인덱스가 100선에 근접하는 강세 나타내면서 유로화 가치는 하락
- 후반 들어, 영국 중앙은행의 매파적 금리인하에 따른 파운드화 강세에 동반 강세 시현 후, ECB 당국자의 금리 동결 논조 등에 영향으로 상승세 이어지며 마감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295

1.1380

1.1196

1.1246

-0.0049



엔화 동향

- 주초, 대만 당국의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대만 달러 강세를 용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달러 매도-대만달러 매수'의 강한 흐름이 아시아 통화시장에 전이된 영향 속 엔화 강세 출발. 이어 트럼프의 의약품 품목별 관세 관련 불확실성과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 속에 달러 가치 하락하며 엔화 강세 지속된 국면
- 중반 들어, 미국이 중국과 관세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했음을 알림에 따라 달러 가치가 강세 탄력 받은 영향 속 엔화는 약세 흐름으로 전환
- 후반 들어, 5월 FOMC의 관세 불확실성을 감안한 신중한 금리인하 기조에도 달러 강세 흐름이 강하지 않은 가운데 BOJ 3월 금정위 결과에서 나타난 금리인상 신종론 영향 파급으로 소폭 엔화 강세 전환. 이어 주 후반, 미-영 협정 체결 소식에 따른 미-일 관세 협상 기대에 146엔대 상승 후, 소폭 상승 흐름 되돌림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4.9

146.2

142.3

145.3

+0.41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5/7~5/9)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주간 증시 동향

- 국고채 금리는 초반, 한은 총재 밀라노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해 있다는 언급 등이 비둘기적으로 인식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 순매수 등으로 단기 구간 중심 하락 출발. 이어 5월 FOMC에서 연준 의장은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경제활동이 실업률 등 일부 악화된 부분이 있음에도 여전히 견조하다는 입장을 밝힌 측면 등이 국고채 금리 방향성에 반영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단기 구간 국채선물 순매도 등으로 상승 전환한 양상
- 주 후반, 3월 국내 경상수지가 91.4억 달러 흑자를 시현하며 긍정적 경기 모멘텀을 나타낸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장단기 구간 국채선물 순매도 등으로 상승 흐름 이어지며 마감

- 코스피는 초반, 미-중간 고위급 무역협상 회담 진행 소식에 갈등 완화 기대감 반영 등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에 대한 품목별 관세 우려 및 FOMC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되며 상승폭 축소 흐름 시연. 이어 FOMC 회의에서 시장 결과에 부합하는 금리 동결 속에 트럼프 정부가 이전 정부의 AI 칩 수출 통제 정책을 철회할 것이란 소식에 반도체주 중심의 제한적 상승 흐름 이어간 국면
- 주 후반, 코스피는 미국과 영국의 미-중 첫 무역 협상을 앞두고 경계감이 강화되는 양상 보인 가운데 원화 환율 상승 등의 영향 반영 속 약보합 흐름 마감